



박소현의 섹.시.토.크

오랜 만에 친구를 만나러 나간 P. 3년 만에 만나는 친구라며 맛있는 것도 먹고 밀린 이야기도 실컷 나누겠다며 기대가 대단했다. 그런데 밤에 퇴근한 남편을 맞는 P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친구 만났어?”, “만났지.”

“재밌게 놀았어?”, “그다지 재밌지는 않았어.”

남편은 ‘친구네가 4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갔거나, 친구 애가 1등을 했거나, 아니면 친구 남편이 초고속 승진을 해 이사님 사모님 소리라도 들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본인이 가끔 동창회에 다녀온 때 짓는 표정과 아래의 표정이 비슷했기 때문이었다.

남편의 짐작은 비슷했으나 그 내용면에서는 좀 틀린 짐작이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P가 드디어 불편했던 심기의 원인을 털어놓았다.

“당신 40대 부부의 잠자리 횟수가 얼마나 알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잖아.”, “우리 부부 기준으로 말하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만난 친구가 아니라.”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

다보니 급기야 부부생활에 관한 것도 나왔다. 여자들이 원래 그렇다. 아이 자랑, 남편 흥보기, 시댁문제 핫한하기가 순서대로 들고 나면 꼭 다음 순서는 잡자리다. 문제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P의 잠자리 횟수를 듣고 깜짝 놀란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40대는 일주일에 두 번씩 해야 한다. 우리도 일주일에 두 번은 꼭 해.”

친구는 ‘통계에 의하면’이라는 말을 유난히 강조했다. 친구의 말을 빌자면 그들은 통계에 맞는 부부고 P부부는 통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균

알고 있었다.

“당연히 없지. 30대 후배들도 그렇게 못한다.”, “그럼 그 통계는 어디서 나온 거야?”

“통계는 무슨 통계, 괜히 그러는 거지. 그리고 그 친구가 일주일에 두 번 하는지 우리가 알게 뭐야.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그말에 P가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맞아. 어떻게 알아. 밀로는 무슨 소릴 뜻해! 당신 말대로 괜히 그러는 건지도 몰라.”

“분명히 그럴거야. 40대가 일주일에 두 번 한다는 통계도 말이 안되고 실제 그렇다 해도 진실은 아닐 거야. 한 달에 한두 번 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지.”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괜히 열만 냈네. 그만 자자.”

‘우리는 이게 뭐야’하고 불통이 끌까 전전긍긍 하던 남편은 이제 편하게 잘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P는 다음에 누가 묻는다면 진실과 상관없이 일주일에 두 번이라 말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연애 칼럼니스트〉

40대 부부 일주일에 두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통계는 도대체 누가 낸거야”

“한 달에 한두 번? 너네 부부 정말 문제 있구나.”

“그 통계 누가 낸거야? 어떻게 40대 부부가 일주일에 두 번씩 한다는 거야? 친구들 중 일주일에 두 번씩 한다는 애는 없는데.”

P는 적잖이 흥분한 듯 보였다. 이럴 때는 장단을 맞춰 주는 게 이롭다는 것 정도는 남편도 잘

리빙 센스

매콤한 고추 계란말이



계란 5개, 청고추 3개, 흑고추 2개, 소금 조미, 식용유

① 계란 하나에 흑고추를 넣고 박서기로 갈아 놓는다. 다른 하나는 청고추를 넣고

갈아 둔다.

② 계란 2개를 노른자와 흰자로 분리해 놓는다.

③ 나눠놓은 노른자에 계란 하나를 넣고 잘 섞어준다.

④ 펜을 살짝 달군 뒤 식용유를 살짝 두르고 약불에서 흑고추를 넣고 간 계란으로 지단을 부친 뒤 살짝 익으면 둘둘 말아준다.

⑤ 흰자는 빗고 지단을 부쳐낸 뒤 양혀놓은 흑고추 맙이를 올려 함께 말아준다.

⑥ 같은 방법으로 청고추를 넣은 계란을 만들어 놓은 계란말이와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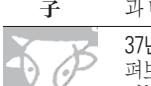
⑦ 마지막으로 노란자로 지단을 부쳐 세겹으로 된 계란말이와 함께 말아내면 알록달록한 계란말이가 완성된다.

知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3일(음 9월 5일 丙子)



36년생 육심을 내지 마라 좋은 날이다. 48년생 여러 가지 고생이나 날 수 있으나 분수를 지켜라. 60년생 친인척의 변동으로 걱정이 생긴다. 72년생 어려움은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되리라. 73년생 과마의 중증한 고생이 있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0, 27



37년생 허황된 문서를 조심하면 대손은 없다. 49년생 자녀를 살펴보라. 61년생 어려움은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되리라. 73년생 믿는 도끼도 새심하게 살펴보라. 85년생 합자 동업 신규투자는 심사숙고후 결정하리. 행운의 숫자 : 04, 45



38년생 건강이 상수하니 겹침을 받아보라. 50년생 친구가 다시 돌아온다. 62년생 젊은 세 문서를 접하고 가내는 경사로다. 74년생 사랑은 있으나 만날 수 없으니 안타까울 뿐이로다. 행운의 숫자 : 08, 33



39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내실 있게 드리한다. 51년생 같은 화려하나 속내는 허하니 실속 있게 처신하라. 63년생 강물이 순수하니 편안한 하루다. 75년생 직장에서 신중하게 처신하고 가정 행운의 숫자 : 05, 25



40년생 특특한 제방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다. 52년생 지출을 가장과 의논하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 64년생 자신을 낚주면 오히려 자신이 옮겨간다. 76년생 협력자 만나서 도움을 받는다. 행운의 숫자 : 22,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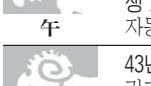
41년생 집안의 평화는 참아야 한다. 53년생 근자에 만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니 선택을 잘하라. 65년생 이웃을 살펴보면 적선할 기회가 생기리라. 77년생 여성 보다 친구 만나기 좋은 날이다. 행운의 숫자 : 02, 26



42년생 겉으로는 싫어하나 속으로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 54년생 자신과 가정, 직장사이에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 66년생 보금자리를 매단져라 사립이 보인다. 78년생 오늘은 밖에서 자동차를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19, 29



43년생 새로운 일이 생기고 협조자가 달려온다. 55년생 우두머리가 돌아나니 선택을 잘하라. 67년생 의외의 득재와 집안의 안정이 있다. 79년생 독신자는 새로운 연인을 만날 기회니 준비하고 기다리라. 행운의 숫자 : 07, 40



44년생 자녀와 떨어져 살아야 할 경우가 생기지만 좋은 일이다. 56년생 오늘 하루는 외근보다는 내근을 하라. 68년생 진행하던 일이 순조롭게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 80년생 눈이 조급한 날워서 현실을 보다. 행운의 숫자 : 15, 36



45년생 호수에 배를 피우나 행운은 반반이다. 57년생 신사나 문서에 눈물 날까 두렵다. 69년생 과도한 투자만 없으면 결과는 솔솔 하리라. 81년생 오랫동안 기다리던 소식이 등에서 온다. 행운의 숫자 : 09,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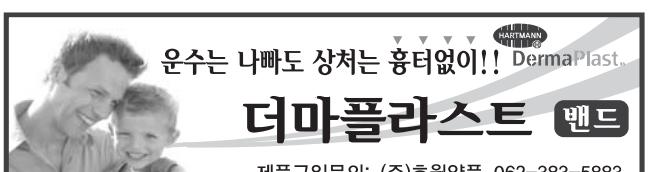


46년생 옛 일이 괴로우나 다시한번 살펴보라. 70년생 처음에는 당황하나 흥이 볼로 변하는 형상이다. 82년생 허황된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으니 현실로 돌아오라. 행운의 숫자 : 12, 26



47년생 미미한 발생될 수도 있으니 사랑으로 보내라. 59년생 해독은 일은 먼저처럼 날리고 화해하여 지내라. 71년생 다행으로 미움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고 또 신중 하라. 83년생 연인과 접속이 된다. 행운의 숫자 : 06, 37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검색결정 키워드 검색

인기 스타 결혼 행렬... 강의석씨 누드 시위

인기 스타들의 결혼 행렬이 이어졌다.

지난달 28일 인기배우 권상우·손태영 커플이 결혼식을 올리고 백년가약을 맺었다. 두 사람의 결혼식에는 장동건·이병헌·송승현·한가인·변정수 등 유명 연예인이 총출동해 화제가 됐다. 같은 날 민능 엔터테이너 유재영과 배우 오승은은도 가을의 신부가 되면서 스타들의 웨딩 마치가 이번 주 네티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추추트레인’ 야구 선수 추신수도 인기 검색 어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메이저리그 클리브랜드 인디언스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가 아메리칸 리그 ‘이달의 선수’로 선정되면서 검색어 순위에 이름이 올랐다.

9월에 24경기에 출전해 0.400 타율을 맹타를 휘두르며 5개의 홈런으로 24타점을 기록한 추신수는 생활한 후보들을 제치고 ‘이달의 선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인 메이저리그 타자로서는 첫 수상이며 추수로는 LA 다저스의 박찬호가 지난 1998년 7월 내셔널리그 ‘이달의 추수’로 선정된 적이 있다.

국군의 날 화제가 된 인물도 있다.

서울 대광고시절 학내 종교 자유를 외치며 단식 투쟁을 해 화제가 됐던 강의석(22·서울대 휴학)씨가 이번에는 누드시위로 검색어 순위에 등장했다.

강씨는 1일 국군의 날 행진이 벌어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전차가 지나가자 알몸으로 뛰어나와 ‘평화는 생명입니다’를 외치며 누드 시위를 벌였다. 강씨는 또 소총을 본떠 만든 과자로 전차에 총격을 가하는 퍼포먼스로 전차 행진을 막아 경찰에 연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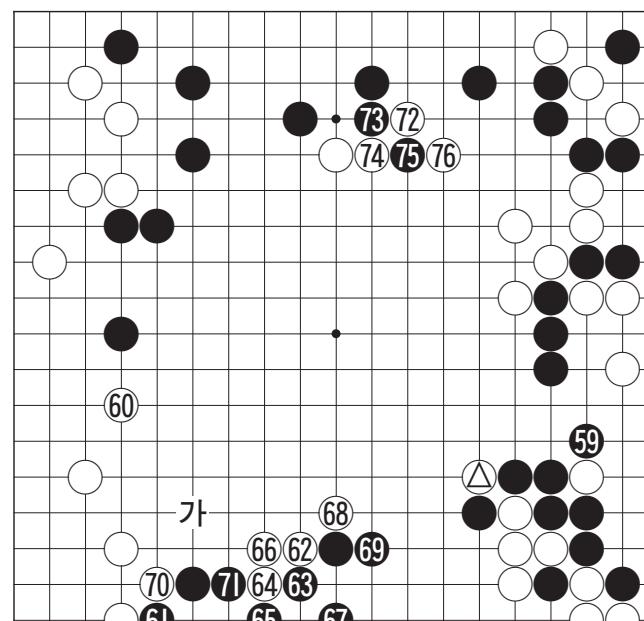
건군 60주년 국군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강의석씨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군대 폐지의 메시지를 담은 누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제2회 광주바둑협회장배 아마최강부 결승

재미있는 발상

5보 (59~76)

白 선계성 6단 黑 심재욱 6단



선계성 6단이 기 세좋게 백 ⑧로 끊어간 장면인데 심재욱 6단이 59로 고분고분 물러서

자 김이 빠져버린다. 그래서 백 60으로 전환했는데 이 수로는 하반 64 자리에 쳐들어가는데 수도 생각할 수 있었다.

흑 61은 효과적인 수이며 백 62로 붙이고 64로 이단젖어간 것은 상용의 맥집이다. 이 수단 때문에 61로는 그냥 ‘가’에 뛰어드는 것이 알기

쉬웠는지 모른다. 흑 65가 심재욱다운 재치있는 수로 재미있는 발상이었다. 이 수로 선계성 6단의 기세를 누그러뜨리고 71까지 하번을 무난히 승수하게 되었다. 백 66으로 이은 수로 달리 둘다면 ‘참고도’의 백 1로 끊고 3으로 잡게 되는데 그러면 백 97까지가 예상된다. 물론 이것도 실리가 괜찮아 뭇돌 바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흑이 두터워지는 것이 쉽은 것이다.

상반에서 흑 75로 끊어왔을 때 백 76이 엄청난 반발이다. 과연 이 수는 어렵겠지. 물론 이 수는 상당히 좋았을 것이다.

〈오큐칠 9단·본보 바둑 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RESORT/SIRAK 엘도리도리조트

굿모닝 잉글리쉬 <1159>

We would do that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A : What do you want to do today, go mountain climbing or something?

B : I would rather ski than go mountain climbing.

A : We would do that.

B : Good, I'll bring my skis over.

A : 오늘 등산이나 뛰 다른 활동 하실래요?

B : 등산하느니 차라리 스키를 타려 가는 게 좋겠어요.

A :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B : 좋아요, 제가 스キー 장비를 가져오지요.

* mountain climbing : 등산

* ~ or something : ~